

올트먼, 한국 기업과 'AI 동맹'... K스타게이트 시동

(오픈AI CEO)

카카오와 AI 서비스 고도화 기술협력·상품개발 공조 합의 최태원·이재용 회장과도 잇단 면담... AI 경쟁력 강화 논의

인공지능(AI) 분야 선도 기업 오픈AI가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 체결에 이어 SK와 삼성 등 국내 기업과의 업무 협력이 기대된다.

카카오는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오픈AI와 전략적 제휴 체결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참석해 양사의 협력 방향성을 공유했다.

오픈AI가 국내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카카오와 오픈AI는 보다 많은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

과 공동 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아 대표는 키노트(애플이 개발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발표에서 “오랜 기간 국민 다수의 일상을 함께 하며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개인화된 AI를 선보이는 것이 지금 시대 카카오의 역할일 것”이라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오픈AI와 협력해 혁신적 고객경험을 제공함으로써 AI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와 오픈AI는 2024년 9월부터 'AI 서비스 대중화'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기술과 서비스사업 등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먼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오픈AI의 최신 AI기술 API를 활용하기로 했



정신아(왼쪽)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

다. 아울러 'AI 네이티브 컴퍼니'로의 전환을 가속하고자 챗GPT 엔터프라이즈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현재 개발 중인 카나나 서비스에 자체 언어모델과 더불어 오픈AI의 모델도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양사는 기술

협력을 넘어 공동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한국 이용자를 이해하는 카카오와 글로벌 AI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오픈AI의 협업은 국내시장에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 AI 서비스 대중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트먼 CEO는 “카카오는 기술이 일상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혁신적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며 “우리는 카카오의 수많은 이용자에게 첨단 AI를 제공하고 이 기술을 카카오의 서

비스에 통합해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소통과 연결 방식을 혁신하는 데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AI는 카카오와의 제휴 외에도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트먼 CEO는 4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오픈AI 비공개 워크숍 빌더 랩에서 “한국은 AI와 관련된 강력한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올트먼 CEO의 비밀 회동도 4일 오전 9시40분부터 40분 동안 진행됐다. 최 회장과 올트먼 CEO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전방위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일 오후 올트먼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동을 진행하는 등 국내 AI 기업들과 오픈AI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11살 동갑' 이마트24·빗썸 공동 생일파티

28일까지 110억 원 혜택 제공

편의점 이마트24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올해 창립 11주년을 같이 맞이한 만큼 '공동 생일파티'를 콘셉트로 한 대규모 행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사는 총 11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경품을 준비했고 약 800만 명의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24는 2월 말일까지 매장에서 5000원 이상(담배·주류·서비스·노브랜드 제외)을 구매하는 고객 전원에게 빗썸 앱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원화(KRW)를 선물로 준다.

고객들은 최소 1000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빗썸에서 모든 종류의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원화(KRW)를 랜덤으로 받을 수 있다. 매장에서 5000원 이상 구매 시 발급되는 영수증 꼬리표에 있는 쿠폰번호를 빗썸 앱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마트24는 2월 1일 이후 모바일 앱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이프레스 HOT커피'(1300원 상당) 교환권을 제공하



이마트24·빗썸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대규모 공동 생일파티를 연다.

이마트24

고 기존 회원들에게는 모바일 앱 로그인 시 '이프레스HOT커피' 반값 쿠폰(650원 상당)을 2배 제공한다.

이마트24는 창립 11주년을 맞이해 즉석

밤스낵·가공식품·세탁세제 등 780여 종 상품을 대상으로 1+1 덩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지난 창립기념 행사 때 650여 종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20% 확대된 규모다.

이마트24와 빗썸은 작년 5월 비트코인을 주는 '비트코인 도시락' 3만 개 조기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이더리움 스테이킹 파스타'를 추가로 출시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양사가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대규모 프로모션을 준비하게 됐다.

이마트24는 이번 창립기념 행사를 통해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하고 덩으로 가상자산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큰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마트24와 빗썸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11살 동갑내기 양사의 생일파티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 최대의 상품과 혜택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SKB 업계 최초 스포티비 실시간 UHD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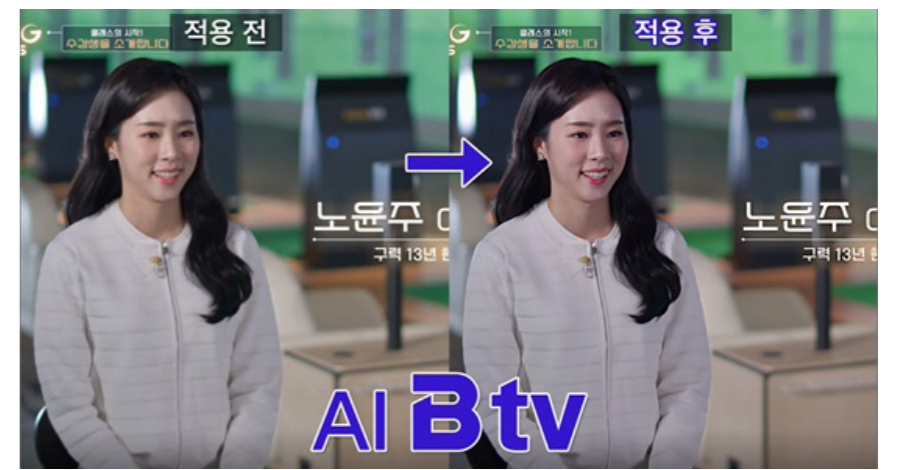
AI 딥러닝 '슈퍼노바' 이용 업계 처음 첨단 기술 선택

SK브로드밴드(SKB)가 업계 최초로 실시간 방송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UHD 초고화질로 제공한다. 4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부터 스포츠 채널 SPOTV를 기존 풀HD 화질(1920x1080)에서 UHD 초고화질(3840x2160)로 서비스한다. UHD는 풀HD 화질보다 4배 선명한 초고화질 디지털 포맷이다. IPTV 양방향 인터넷 프로토콜(IP)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과 데이터영상전자상거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TV를 말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특정 비이벤트 때 방송사들이 직접 UHD로 송출한 적은 있었지만 풀HD로 송출되는 실시간 방송에 UHD 업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한 것은 IPTV 업계 처음이다.

이번 SPOTV 채널의 초고화질 개선은 AI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인 SK텔레콤의 '슈퍼노바' 솔루션을 바탕으로 SK브로드밴드의 기술력이 더해졌다. 슈퍼노바



SKB UHD 업스케일링 예시.

SKB

는 SK텔레콤 핵심 기술로 AI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으로 영상과 이미지 혹은 음원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의 품질을 직접 개선하는 솔루션이다.

특히 고성능 AI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내장된 서버를 통해 영상의 색감과 선명도 등을 향상시킨 화질 최적화로 일반 스마트 TV에 내장된 AI 기능 대비 훨씬 뛰어난 화질을 제공한다.

SK브로드밴드는 B tv 고객들의 초고화질 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역동적인 스포츠 장면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

록 SPOTV 채널을 선택했다.

SK브로드밴드의 주력 모델인 스마트3와 AI 4 vision 등 UHD를 지원하는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초고화질 방송을 경험할 수 있다. UHD를 지원하지 않는 TV도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화질로 시청할 수 있다.

조형준 SK브로드밴드 미디어테크본부장은 “AI 기술력을 활용해 IPTV 사업자 중 처음으로 실시간 방송 UHD 초고화질 개선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